

웃주름없는 금동여래입상 한-중 불교미술교류사 '증거'

북경서 11월까지 '산동성출토 불교미술전' 열려

경주와 산동성 불상 제작양식 공통점 발견

우리나라에서는 양평·경주지역에서만 집중적으로 발견되는 웃주름 전혀없는 금동여래입상의 독특한 양식은 불교미술교류사에서 어떤 위치를 갖고 있을까.

최근 중국 북경 중국역사박물관에서 열린 '산동성 출토 불교미술'전을 관람하고 돌아온 경주국립박물관 강우방 관장은 지금껏 학계의 논쟁으로 남아있던 남조 불상의 전형적인 양식을 엿볼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인도 사르나트지방의 불상 양식이 한국 등 동남아시아를 거쳐 이곳 산동성 청주에서 꽃피웠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해 주목된다.

7월 10일부터 11월 9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는 1996년 산동성 청주 용홍사의 금당 뒤 가로 870cm 세로 680cm 길이 350cm 정방형 구멍에서 수습된 불상 조각 800여건을 3년간 보수, 이중 엄선된 불상 80점이 선보이고 있다.

석회암으로 제작된 이들 불상은 주로 복위 말기부터 동위 복제, 즉 530년부터 570년에 이르는 약 40년간에 제작된 것으로, 굴곡진 곡선이 돋보이는 불상과는 눈에 띄게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 바로 얇은 웃을 주름 하나 없이 등에 밀착시켜 여성적인 몸매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 강관장은 이러한 특징이 경기도 양평과 경북 경주에서 출토되는 금동여래입상, 백제의 동위 계열 남석제 불상군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데에 주목했다.

지금까지 불상연구 분야에서 남조 불상의 양식은 최대의 공백이었지만, 현존하는 남조 불상이 없어 전혀 그 특징을 추론할 수 없었다. 강관장은 전시된 불상이 타지역 불상과 다른 점이 없고, 청주에 한때 남조에 속했던 곳이라며 이 불상군에서 남조 불상의 특징을 엿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강관장은 중국 동남 연해 해상교통의 한 거점으로서 경주의 위치에 주목, 산동반도는 백제와 가장 가까운 거리로 신라방이 있었고 신라인이 세운 법화원이 있었던 지역인 만큼 인도에서 시작된 불상 특징이 한국을 비롯 동남아시아를 경유해 이곳 청주에서 남조 불상 양식의 절정을 이루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내 불상연구 분야에서 소외되어 왔던 '웃주름 없는 불상' 즉, 양평·경주에서 출토된 금동여래입상 등에 대한 학술적 연구가 본격화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오종욱 기자(gobaou@buddhopia.com)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금동여래입상(7C). 다리의 굴곡이 뚜렷하고 웃주름은 극히 절제되었다.



산동성 출토 불상(550~577년). 웃주름 없는 불상의 전형형을 보여 준다.



이월종씨의 '일상'.

1천 화가의 3천작품 감상 '아! 대한민국展'

윤주사 전경, 삼매에 빠진 갤러리상, 8월15일까지
선승 등 불교를 소재로 한 미술 작품들이 새 천년을 준비하는 미술인들의 대화합의 장에 나투었다. (주)미술세계(대표이사 백용현)가 21세기를 앞두고 17일부터 8월 15일까지 서울 인사동 갤러리 상에 마련한 '아! 대한민국'전에 전시된 것.

중견작가 1천명이 참여, 3호 크기의 작품 3천여점을 선보이는 이번 전시회는 유채·수채·아크릴·관화 등 다양한 장르에 달아낸 예술작품을 한 자리에서 조망하고, 또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기회도 가질 수 있다.

'아! 대한민국'전에 출품된 불교미술작품은 '윤주사'(박구환), '불상과 종'(박인호), '삼매에 빠진 선승'(안태성), '산문'(이경희) 등 총 15점.

이번 전시회를 기획한 (주)미술세계 백용현 대표이사는 "새로운 천년의 패러다임은 문화와 정신인 만큼 미술 속에 투영된 시대의 정신을 한 자리에서 보는 것 또한 새 천년을 맞이하는 우리의 준비"라고 말했다.

오종욱 기자

신라 천년문화 가상현실로 재현

KIST 영상미디어센터 황룡사 9층탑등 복원 70억 들여 내년 경주엑스포서 선보여

신라 천년의 숨결이 최첨단 가상현실로 되살아난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원장 박호근) 영상미디어센터 김형곤 박사팀은 총 70억원을 들여 내년 9월 경주에서 열리는 '경주세계문화엑스포 2000' 주제영상관에 '가상현실(Virtual Reality)' 기법을 활용한 신라천년의 문화를 재현한다.

신라시대의 탄생설화, 화랑도, 이차돈의 순교, 처용, 원효, 혜초, 황룡사 9층탑, 석굴암, 안압지 등 삼국시대의 역사와 문화를 바탕으로 철저한 고증을 거쳐 최첨단으로 재탄생된다.

김박사팀이 개발한 주제영상관은 '서라벌의 숨결속으로'를 주제로 7백여명 이동시에 관람이 가능하고 가상현실 내 용품을 임의로 고쳐볼 수 있는

도, 이차돈의 순교, 처용, 원효, 혜초, 황룡사 9층탑, 석굴암, 안압지 등 삼국시대의 역사와 문화를 바탕으로 철저한 고증을 거쳐 최첨단으로 재탄생된다.

김박사팀이 개발한 주제영상관은 '서라벌의 숨결속으로'를 주제로 7백여명 이동시에 관람이 가능하고 가상현실 내 용품을 임의로 고쳐볼 수 있는

다. 오종욱 기자

가상현실컨텐츠와 스테레오 영상시스템 그리고 비주얼 슈퍼컴퓨터를 기반으로 한 실시간 인터랙션, 가로 24m, 세로 9m 크기의 초대형 라운드스크린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특히 사람의 몸에 데이터글로브, 특수헬멧 등 전용특수장비를 부착해 가상현실에 몰두하도록 몰입형시스템으로 구축, 서라운드 입체음향을 통해 봉덕사의 신종소리를 사실감 있게 가상현실화면과 함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오종욱 기자

"안동 신세동 7층전탑 보호하자"

하이텔 토론광장... "철도진동 때문에 훼손"

네티즌들이 토론광장을 개설, 국보 16호인 경북 안동 신세동 7층전탑 보호캠페인을 벌이고 있어 주목된다.

하이텔 이용자 우재식씨는 13일부터 토론광장에 '국보 16호를 살리시다'라는 제목의 토론방을 개설하고 국보 16호가 중앙선 철도때문에 위기에 빠져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우씨는 "일제가 1980년 중앙선 철도를 건설하면서 철길을 고의로 탑 인근으로 지나가게 했다"며 "7층탑이 69년간 진동에 시달려 무너질 위험에 매달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 우씨는 또 "탑에서 불

과 3m 밖에 위치한 철도로 기차가 하루에도 수십 번 지나가고 있지만 정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 철로이설을 호소했다.

높이 16.5m의 전탑은 통일신라시대 때 조성됐으며 62년 12월 국보 16호로 지정됐다. 경북 안동시의 주산인 영남산 동쪽 기슭 옛 범홍사 터에 자리한 탑은 순토전(흙으로 구운벽돌)으로 만들어졌고 높이와 역사로 볼 때 가장 대표적인 전탑으로 인정 받고 있다. 당국이 95년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 탑이 전체적으로 동북으로 기울고 분진 등에 의해 변색된 것으로 나타났다.

13명의 재청을 받아 개설된 토론방에 참여한 한 이용자는 "국보도 지키지 못하는 국가는 역사를 말할 자격이 없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오종욱 기자

제1회 만해 청소년백일장

최양일군·박진선양 '대상'

만해사상실천선양회(총재 고산·조계종 총무원장)가 주최한 제1회 만해청소년백일장에서 최양일(신남고 3년)군과 박진선(강릉여고 2년)양이 각각 시와 산문부문 대상을 차지했다.

만해 한용운님의 사상과 문학정신을 기리기 위해 19일~20일 인제백담사 만해수련원에서 열린 이번 만해 청소년백일장에는 강원도내 시·군 38개 고교 1백20여명의 학생과 교사가 참가해 28명이 입선, 각각 상장과 장학금을 받았다.

청소년백일장에서는 이외에도 경희대 김재홍교수의 '만해 한용운님의 사상과 문학정신'이란 주제의 문학강연을 비롯 '님의 침묵' 암송대회, 오세암 등경 등 만해스님의 문학혼을 기리는 행사가 열렸다.

문

부지런한 그가 싫다.
내가 그 앞에 서있는 이유를 그는 모른채 마냥 움직인다.
그런 그가 싫다.
이젠

사람들은 자신 앞의 눈물을 꽃망울에 피어난 아침이슬보다 더 아름답게 만들어 왔다.
물러나지 않는 그를 한순간에 움켜잡기로
이겨왔기에
그 이슬은 꽃망울에 피었으리라.

이슬보다 눈물보다 나음을 알아서였을까.
한 손의 아픔은 상처난 얼굴에 천진스러움을 그려주었다.

그렇게 사람들은 자신을 아름답게 피워왔는데
이젠 한 손의 아픔으로 어려우리만큼

시들고 있다.
점점 말라가고 쪼그러지고 있다.
밀고 당김의 고통을 함들을 입지 않아도

그는 이유없이 까닭없이 움직인다.
나태한 사람들의 작품
부지런한 그
하지만 그는 왜 부지런해야만 하는지 모른다.

내가 그 앞에 서있는 이유를 모른 채 움직인다.
나태한 우리들의 작품.
우리들의 움직임을 빼앗은 그

이젠, 게으름의 문을 만들자
사람들의 손에 상처를 입히고
그 상처에 더할 수 없는
기쁨이란 약으로 덮어주리라.

최양일(신남고 3학년)



기타타치며 불을포고 나선 도일스님.

도일스님 찬불가 음반 무상보시

통기타로 찬불가를 포교하는 도일스님(직지사 수성포교원 황룡사주지)이 찬불가와 법문을 담은 테이프를 15일 출시했다. 이번 음반에는 찬불가 '우리의 기도' '밀음' '누우치오니' '해탈의 기쁨' 등 찬불가 10여곡이 수록됐다. 도일스님은 "앉아서 기다리는 포교보다는 일반 불자들에게 좀더 적극적인 모습으로 다가가는 음성 포교를 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3천개가 제작된 이번 음반은 사찰과 신도들에게 무상으로 보시한다. (053)784-8620

김주길 기자(jikim@buddhopia.com)

전통 생활공예에 모음전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은 8월 2일부터 31일까지 서울중요무형문화재전수관에서 '삶의 여유와 멋을 가꾸는 전통생활공예에 모음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에는 전통공예가 40명이 심혈을 기울여 제작한 전통생활공예품과 전통문화상품 400여점이 전시된다. (02)566-6313

문화 단신

해의 한국문학 심포지엄
한국문인협회는 제9회 해외 한국문학 심포지엄을 29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한다. '한국문학과 남방문명의 만남'을 주제로 수필가 정목일씨가 '인도의 불교전래와 한국문학', 문학평론가 김영기씨가 '한국문학과 남방문명의 만남' 등을 발표한다.

제주청교련 합창단 창단

대한불교청교련연합회 제주주부 부설 제주청소년합창단이 창단된다. 연합회는 지난 2일 창단을 위한 이사회를 열고, 초대단장에 고운권씨, 지휘자에 홍영희씨를 각각 선출했다. (064)725-0108

창작시대 전화 325-5355 팩스 325-5385

히말라야 '山中問答' 생과 死를 논하다!

부자간의 대화를 통한 동서양의 만남!
현대 철학자 5인 중의 한 명인 아버지와 생물학자이자 티베트 승려인 아들이 세계와 인류, 삶의 의미에 관한 열흘간의 지적 성찰을 통해 우리와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눈다.
이 책은 순전히 우연한 기회에, 아니 굳이 말하자면 인류 역사상 이런 책이 출간된 전례가 거의 없다는 이유에서 나오게 되었다
— 프랑스 '님' 편집부 —

프랑스 베스트셀러 1위 · 교보문고 인문 베스트셀러 1위
승려와 철학자
장·프랑수아 르벨 · 마티유 라리크 지음 / 이영신 옮김 / 양정본 값 12,000원

뉴욕타임스, 더타임스, 로동드 등 이 책에 쏟아진 세계언론들의 찬사!
저자인 두 사람도 이 책의 성공에 깜짝 놀랐다. 철학이 소련본느 대학의 강의실이 아닌 공장의 대강당에서도 쉽게 읽히게 되었다. —더타임스
이 책이 수록된 대화가 난해하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대화를 나누는 주인공이 보여주는 진지함과 지적 깊이에 대한일 것이다. —뉴욕타임스
공부하고 깊이 있는 지적 대화로 이루어진 이 책은 커다란 대중적 성공을 거두고 있다. —로동드
철학자인 아버지와 승려인 아들이 만든다. 두 사람은 '승려와 철학자'라는 부자간의 대화를 옮긴, 프랑스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다. —조선일보
이들의 대화가 더욱 가치 있는 점은 둘 다 최고 수준의 서양 과학문명을 공부한 학자라는 점. 이들의 대화는 불교뿐만 아니라 철학, 정치학, 윤리학, 심리학 등 인류 정신사에 대한 광범위한 지적 탐구로 이어진다. —동아일보
이 책은 현대인의 삶과 사회를 되짚어보고, 그 병리와 대안을 생각하는 데도 유용한 계기를 마련한다. 깊이 있는 지적 대화를 하고 있음에도 어렵지 않게 읽힌다. —문화일보

우리는 이 책을 읽고 꼭 행복해야 합니다!

초베스트셀러가 된 책, 다 이유가 있습니다!

마침내 미국, 일본에 이어 한국에서도 이책의 가치가 증명되고 있습니다!

전미 베스트 1위, 일년만에 600만부 돌파!
일본 베스트 1위, 6개월 만에 200만부 돌파!
한국서점연합회 비소설 베스트셀러 1위!

왜, 맨날 이모양이지?
허구한날 꾸민말론,
이무것도 말라지지 않는 인생을 위하여
비밀 포인 인생의 매듭을 확실히 풀어줍니다.
아주 쉽고도 편안한 실천방법이 가득합니다.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

리처드 칸슨 지음
정영문 옮김/값 7,500원